

● 제 3회 전국도서관인큰모임 제 1 주제——

# 讀書生活化 基盤造成의 問題

金 孝 貞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緒 言

현대는 정보화 사회이다. 21세기 미래는 지식·정보가 대량으로 증가되고 그 생산은 가속화되며, 그 정리, 저장, 검색 및 활용은 다원화, 다양화, 고속 전산화되는 하나의 세계, 지구촌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개인이나 국가의 생존과 발전은 이 지식·정보를 창출, 처리, 활용하는 능력에 의존하게 되고 이 정보활용능력은 상상, 호기심, 사고, 판단, 조직, 종합, 창조로 표현되는 지적 능력, 곧 고등정신력에 의해 좌우된다. 단순한 지적 작용은 컴퓨터에 맡기고 문제를 찾고, 없는 답을 類推하는 발전적 사고는 사람다운 정신력으로 인간만이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미래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고 어느 면에서나 이 정보활용의 두뇌가 가장 중요한 밑천이고 사람다운 인간성에 의한 접근이 가장 큰 투자일 것이다. 따라서 정보활용의 기초수단으로 독서생활화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 그 기반조성의 문제를 살피려 한다.

## I . 미래 지구촌

미국은 일찌기 공교육형성 이래로 거듭되는 연구

개발에서 1918년 7가지 교육목표(The Seven Cardinal principle)를 10~15년마다 주기적인改正과 변혁을 거쳐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 21세기교육목표 28<sup>1)</sup>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교육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가르치나에, '어느' (any) 보다 '모두'(every)를 위한 것이 보다 우선이고 세련된 모습이라는 사실에, 즉 '생각하는 힘'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영어교재지원으로 시작하여 1918년 기준에서 현재 7차에 걸쳐 개정된 기준까지 교육개혁에 핵심<sup>2)</sup>으로 활용되며 배우는 방법을 배워 미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독서생활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현대 정보화 사회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창하며 3R을 넘어 창조적 생각과 문제해결, 판단하는 인간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나라도 미래 교육전망에서 보다 높은 자력, 보다 예민한 감수성, 보다 투철한 윤리의식, 보다 국제적 의식, 미래의식, 시련을 이기는 의연함을 지닌 전인적 인간을 주장하고<sup>3)</sup> 있다.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정보활용을 구사하는 分辨力있는 의사결정(소비자, 유권자)과 성실한 근로자, 영향력있는 미래 부모<sup>4)</sup>를 실천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사회와 국가의 미래는 이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인간적 자질개발(계몽, 지식, 교양수준향상, 도덕

1) R.A. Danies SLMP New York, Bowker, 1979. p.24 '26

2) 金孝貞, 教育改革을 위한 SLMP의 적중 가능성 中大논문집27집 1983. p.18.

3) 정범모, 교육난국의 해부, 서울, 나남. 1991. pp.354~405

4) T. Jones, Toward Success, SLMQ, 20(3) 1992. pp.142~147

과 적응력 함양, 문화수준등)을 우선으로 한다. 이 개발은 인간 커뮤니케이션 기본기술인 독서를 통하여 자신과 싸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여, 수용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부터 행복을 얻을줄 알고 열린 눈과 머리와 기슴으로 폭넓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느낄 줄 아는, 독서생활화에 의한 정보활용자를 요구한다. 곧 인류 역사속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본기술, 독서능력을 지닌 주민만이 발전을 계속하여왔고<sup>5)</sup> 선진국을 이루었으며 미래 지구촌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II. 독서생활화의 목적과 필요

독서는 인간이 알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되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기본기술(Communication Skill)이다. 글, 그림, 책을 읽는 간단한 정의와, 다음과 같은 복잡한 정의까지 그 개념의 폭이 넓다.

복잡한 독서개념은 독서자료를 통로로 독자의 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중에서 연속하여 하나씩 취사선택하고 전체를 통합하는 작업이 단계적이고 계속되면서 불분명한 의미를 차차 확실하게 밝히고 글의 끝 부분을 읽을 때 비로소, 읽은것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글, 책, 정보매체에 있는 저자의 언어기호나 신호의 의미는 글자나 신호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매체인 글과 책, 정보매체를 통하여 독자의 뇌리에 수집, 분석, 정리, 통합,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얻어낸 의미를 체계있게, 뭉뚱그려 종합하는 능동적인 전략적 사고과정을<sup>6)</sup> 거쳐 획득된다. 밖에서 빙빙도는 저자의 생각대로가 아닌 독자자신의 생각으로 새롭게 조정(평가, 판단, 구별, 거절 또는 수용)하여 창조적 이용이나 응용을 한다.<sup>7)</sup> 그리하

여 단순한 지식·정보의 축적, 취미 오락의 추구만이 아니라 생각하기 위한 지식을 독서로 구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며, 독서와 더불어 생각하여 자아를 발견하고 창조적 사고가 가능하고 고등정신력이 함양되어 미래에 대처하는 인간성의 함양과 회복의源泉으로 창조적 적응력을 발휘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상실된 인간성 회복, 사람다운 인격형성과 창조적 적응,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의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하는 天然한 인간자원, 곧 인간생존의 수단으로 제조명 받아야 한다. 즉 독서는 인간의 본능적 정보기본기술, 기초적 학습력과 평생 학습력, 창조적 적응력, 잠재적 인간성의 기능을 지닌 인간생존의 수단인 것이다.<sup>8)</sup>

독서생활화는 국민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바른 독서습관을 얻게하며 독서로 평생을 생활화하고 독서과정에서 얻은 지식·정보로 자신의 생활과 창조적인 생산에 적응시켜 자신의 계발, 형성,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하는 민주시민으로 인간형성을 도와주는 정보활용의 교육, 문화적 사회화 운동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그 연결방법과 독서자료 및 독자에 대해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독서할 수 있게 자극하고 마련하는 정보활용의 사회화에 있는 것이다.

독서생활화의 기본 목적은 어느 층이나 직업의 구별없이 모든 국민의 생활속으로 심화되어 자발적, 주체적 독서를 생활화하고 독서 행위자체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속에 뿌리를 정착하게 해야 한다는 데 있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sup>9)</sup>

- ① 자기교육의 지속
- ② 개인의 창조적, 감상력의 신장

5) J.H. Shera. *The Foundation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s*, New York. John wiley. 1972. p.159

6) 김효정. 독서과학의 발전과 독서교육 문리대학보 36집 중대문과대학, 1977. p.34

7) W.S. Gray, *Reading* New York. IRA. 1984. pp.18~19

8) 김효정 등, 독서의 힘 서울, 구미무역, 1992. pp.15~16

9) 管原峻, *讀書運動 學校圖書館事典*, 東京, 第一法規, 1969. pp.32~33

- ③ 학문과 지식 정보에의 기여
- ④ 표현의 자유와 사회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적 태도의 양성
- ⑤ 사회적 양식의 향상
- ⑥ 효과적인 일상생활과 지역사회발전의 도모
- ⑦ 개인행복과 사회복지의 증진
- ⑧ 여가선용

이 독서생활화는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읽어야 하나의 자기성찰과 발달(교육)이 뒤따르고 단계적인 독서력과 독서습관 형성 및 그 개발과 미래에 대비한 정보활용력을 명제로 내포하고 있다.<sup>10)</sup>

사회와 국가발전은 물질적 자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문자원인 주민의 교육수준과 문화수준에 의한다. 이 두 수준은 서로 수레바퀴 같고 이들의 바탕은 커뮤니케이션 기본기술인 독서능력과 그 교육에 있다. 그러므로 독서생활화를 미덕으로 하는 선진문화 신 한국창조가 가능한 것이다.

### III. 독서생활화의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 사람은 일찌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여 옛 성현의 책을 읽는 것을 미덕으로 선비문화를 이루하여 왔다. 신라는 관리등용에 讀書三品料를 설치하였고, 고구려는 太學에서 經學과 文學의 감독과, 경당에서 독서를 권장하였고 고려는 이미 종이와 세계 최초 금속활자주조 및 인쇄기술발달, 광종 9년 과거제 도입, 인종12년 孝經, 論語 分賜<sup>11)</sup>등 독서풍토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독서는 특권층에 한정되었으며 고려 말, 선초에 士大夫들은 독서하면 士(선비)요 정치에 종사하면 大夫로, 이 선비층은 주업이 독서였고 독서토론, 강론을 펼치며 덕행과 학식을 쌓는 것이 日常생활이었다.

세종14년 「三綱行實圖」, 성종조 소혜황후 한씨 「內訓」, 퇴계 이황 「閨中要覽」, 우암 송시열 「戒女歌」등 여성독서자료까지 배포<sup>12)</sup>, 세종8년 「賜假讀書制」<sup>13)</sup>에 이어 「독서당」「湖堂」「玉堂」에 의한 독서장려 및 권장, 그리고 조선조후기까지 서당을 중심으로 어린이교육을 전제로 하는 「千字文」, 「童蒙先習」「明心寶鑑」「小學」등의 독서자료 활용은 철저한 독서생활화의 기반조성이었다.

한편 세종조의 한글 창체는 한글 歌詞文學을 꽂피웠고 후기에 기행물, 일기, 편지, 소설등으로 사대부 위주의 독서생활화를 일반대중에게까지 확대시켰으며 중세 봉건문화를 근대시민문화로 이끌어 내는 독서생활화의 기반조성이었다. 결국 조선조 초기의 임신양명파 중기의 도학주의, 후기에는 실천적 해결을 내세우는 經世致用<sup>14)</sup>으로, 독서생활화를 변천시키었으나 급격한 세계적 사회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自己指何의 쇄국주의로 외세문화에 침식당하였지만 근대독서생활화의 根底를 이루었다.

신문화운동과 더불어 他人指何의 민족적인 독서생활화가 다시 일어 일본과 같은 간이도서관도 전립되었으나 그 맥을 잊기 어려웠고 해방이후 독서주간을 설정하는 등 국민독서의욕을 고취하였지만 혼란기 속에서 소극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현대적 독서생활화는 1950년대에 와서야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국가발전을 내세운 경제도약에서 이에 상응하는 정신적 문화적 가치관과 의식의 선진화를 따르지 못하는 독서생활화에서 무질서와 혼돈으로 本末이 전도되고 외적가치만 추구하고 전전한 자존과 온당한 상식조차 흔들리고 있다. 윤리도덕을 존중하는 인간성 회복과 이웃과 더불어 공존하는 미래 지구촌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 목표설정과 철학에 근거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생활화가 요망되고 있다.

10) 한국문예진흥원, 국민독서생활화방안 연구, 서울 1992. 9. p.149

11) 金宗瑞 高麗史節要, 仁宗, 12년 甲寅 3月初

12) 김효정, 조선시대 유학사상과 여성에 대한 인식. 여성교양, 서울 중대, 1979. 26 '36

13) 朝鮮王朝實錄, 世宗, 34, 8年 12月

14) 金泳, 丁苦鑑의 現實認識과 讀書論, 강원대학 논문집 15, 춘천, 강원대, 1981.

미국은 1721년 B. 프랭크린의 Juto club과 1731년 Library company가 그 시초였으나 현대적 의의는 1919년 보이스카웃 관장인 K.M. 프랭크린이 일정기간에 독서생활화를 시도<sup>15)</sup>한 것이 첫 시작이었다. 기본적 독서습관, 북독, 독서능력, 사고과정으로의 독서교육등 다각적인 학문연구가 진행되고 독서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분석이 시도되며, 각 주마다 독서교육을 강조하여 공교육제도속에 독서생활화를 심도있게 전개하고 있다.

1956년 도서관봉사법(LSA), 1958년 국가방어교육법(NDEA), 1964년 도서관봉사건설법(LSCA), 1965년 초·중등교육법(ESEA) 1965년 고등교육법(HEA) 1982년 교육합동개선법(ECIA) 등 지속되는 법적 체제정비가 국가차원에서 독서생활의 기반을 확실하게 조성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각급학교는 독서계획, 필독독서목록등을 작성하고 인간성장과 지식·정보의 근원이 되는 책과 도서관 및 정보활용 능력을 교육하고 있어, 생각하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사회적 전통을 이루고 공공과 학교, 가정(주민)이 삼위일체 협력망을 이루고 성공적인 선진문화의 예를 남기고 있다.

덴마크는 일상생활에서 식사와 같이 독서를 중요시하고 인구 520만명을 위하여 1,495개 도서관이 있고 중앙도서관을 주축으로 소규모 도서관을 통괄하여 국민 누구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게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전국적 조직 기반을 조성하여 독서생활화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추진, 지식충족, 식생활문제 해결, 독서결과의 실생활에의 반영등을 주장하며 현대적 독서생활화를 추진하였다. 1960년에는 일본도서관협회주관으로 지역예산의 1%를 도서관산업에 할당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독서생활화가 확고하게 정착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활동은 「독서회」「학부모회」「어머니문고」「부모와의 20분간 독서운동」「어머니 책읽기」등 독서권장운동, 독서클럽 실태조사, 악서추방, 양서보급활동을 전국적인 독서생활화로 전개하였고 도서관체, 출판계 및 학교도서관계가 중심이 되어 유기적, 조직적인 추진으로 경제대국과 선진문화를 이루고 있다.

#### IV. 독서생활과 기반조성 문제

도서관은 인문주의를 바탕으로<sup>16)</sup> 교육, 연구, 문화, 여가의 기능을 전체로 이용자의 생활에 자료를 제공하여 연결하고 독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공공 기관이다. 책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 방해되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책읽는 방법을 도와주고 연결하는 여러자료와 방법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모든 독서활동과 밀접하게 관계하며 모든 사람에게 독서하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독서는 저자의 생각을 기호화하여 지각하게 하고 독자의 생각을 일으키는 저자와 독자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고 도서관도 보다 큰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전달내용을 효과있게 전하므로써 정보화사회에 대비하는 적극적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1906년 「대한도서관」과 「대동도서관」 설립취지<sup>17)</sup>에 “독서를 권장하는 도서관은 대중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는 개념에서 시작, 책과 사람을 연결하여 책을 읽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일제와 해방의 혼란에 이어지는 사회급변속에서 1963년 도서관법을 처음 제정하고 30년만에 1991년 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였으나 바람직한 독서생활화에서는 미흡하다. 다만 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1항과 3항에 밝힌 바 공공도서관은 ‘독서와 책을 사랑하도록 봉사하는 기관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사회교

15) 양태진, 독서운동 그 현황과 진단 도협월보 14(9) 1973. p.257

16) J.H. Shera, op. cit. pp.197~199

17) 한국도서관협회,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부, 199. p.23

육기관이다'라 하고, 동법 제20조 제4항에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과 수립의 실시" 항목을 신설하여 독서생활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국가의 첫 의지를 표명하였다.

1993년 통계<sup>18)</sup>에 의하면 전국 공공도서관 273개관, 1관당 인구 160,614명, 인구1인당 기본도서 0.165책, 1인당 연간증가 0.017책으로 각 공공도서관마다 도서관주간, 독서주간을 연례행사로, 독서생활화를 전개하고 있고, 총 36종의 도서관 프로그램 중 18종이 독서에 관계있는 봉사활동이다. 그 중 독서학교(1970), 이동도서관(1971), 독서회는 중요한 도서관봉사활동이고 특히 독서회는 독서생활화의 효율적 방안으로 기여하지 못하여 자체의 프로그램 개발 보다 표준화 모형의 제시를 원하고 있는 실태이다.<sup>19)</sup>

더욱 공공도서관이 열람석제공이 아닌 자료 제공 기능 즉 「장서중심」 「관외봉사활동」 「문화활동」 중심으로 전환되고 명실상부한 문화, 사회, 교육, 정보의 센터(Resource)로 각광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는, ①도서구입예산의 증액, ②도서관 관외대출이용 위주로의 제도개편, ③공부방이용의 정지, ④독서자극을 위한 개가제 준수등이 뒤따라야만 기반조성의 기초가 형성 될 것이다.

R.A. Davies는 학교도서관을 SLMP(School Library media Program)로 나타내고, 우수한 질적 교육을 위하여 배우기와 가르치기의 원동이고 자기실현을 현실화하는 원동력을 주장하였다. 곧 SLMP는 배우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정보·경험·영감을 다양한 형태로 보관할 뿐 아니라 활용되는 정보자료환경원(源)으로 생각을 얻는 분석적 태도의 개발, 다른 견해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평생 긍정적 관계에서 정보와 생각

(idea)을 취급하고 표현해내는 수단을 흥미롭게 개발시켜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정보활용력과 자연과 인간을 조화있게 조절하는 인간성을 내포하는 천연한 교육, 조화로운 전인교육, 더불어 이웃하는 인간관계 및 새로운 문화태동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육변화의 전설적 수단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프로그램<sup>21)</sup>이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실제적 專用도서관은 2.38%뿐 사서교사 배치율은 12.9%, 학생1인당 기본장서 2.5책<sup>22)</sup>뿐이다. 미국, 일본이 1인당 10권 이상인 기준에 1/4수준이다. 더욱 도서관진흥법 개정과정에서 교육계열 도서관은 본의 아니게 법적 미아로 취급당해 실제 법규미비에 의한 학교도서관 수의 감소와 사서교사의 사기저하 및 의욕상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정보기본기술(information skill)은 고사하고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생활화는 사명감있는 몇 사서교사의 열성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부재와 함께 기초 독서력과 독서습관 형성 마저도 혼들리고 있는 실태이다.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생활화는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독서를 교과목과 연계된 정보기술로 습득하지 못하고 미비한 상태의 도서관이용수준에 머물며 독서생활화 교육의 개념정립을 위한 학문적 이론이 약하다. 학생을 손쉽게 책에 접근시키려는 의도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독서지침서(1978)를 작성하여 주당 1시간의 정규독서시간을 정하고 도서구입비도 집행하고 학과목 외로 학생의 독서생활습관을 꾀<sup>23)</sup>하려 하였으나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읽고 지도할 것이라는 개념과 철학의 확립없이 지도내용과 방향조차 확실하지 않았고, 결과 평가의 방법조차 애매모호하여, 담임이나 교과담당교사의 협조체계없이 진행되었다는 문제만을 남긴 행사를 위한 행사로

18)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동협회, 1993.

19)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백서, 동협회, 1992, pp.89~91

20) R.A. Davies, op. cit. pp.35~62

21) 김효정,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사서교사의 위상. 중대논문집 33집 1991. p. 61

22)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백서 pp.164~165

23) 이정희 학교도서관 기능의 전환기 도협월보. 19(12) 1978. pp.6~10

끝나고 말았다.

이상 언급한 우리나라 독서생활화 프로그램을 종합분석하면 다음과 같다.<sup>24)</sup>

○ 독서교육에 관한 활동 : 독서교실, 기업체내 독서대학, 한우리독서클럽등

○ 독서환경조성 :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대출문고, 작은도서관, 분관, 인포어린이도서관등

○ 독서권장 및 지원 : 독서주간, 도서관주간, 도서전시, 도서상품권, 독서감상문등

○ 독서자료선정 : 추천도서, 이달의 도서, 이달의 책, 선정도서, 필독도서, 서평문화등

독서생활화는 결코 구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독서생활화 과정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치밀한 추진계획과 긴밀한 협력체계확립,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확보, 용의주도한 실천이 있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 현대정보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날로 증대될 뿐아니라 첨단과학기술, 매스컴의 발달에 의하여 정보지식이 다양한 매체로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정보범람상태에서 독서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구호일변도의 형식적 단조로운 운동에서 벗어나 장기목표설정과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득력있고 조직력있는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

## 結 言

21세기 지구촌 사회에 대처하는 독서생활화 기반 조성에는 다음 3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첫째 독서는 사회진보의 수단이듯 미래에 대처하는 **인간생존의 수단**으로 그의 본질과 기능을 재확인하고 정보, 책, 도서관을 통한 독서생활화를 재인식하고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생각의 힘’, ‘독서의 힘’으로 재조명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중심의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철학을 지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적 계획<sup>25)</sup>과 조직을 수립하고 적극 수행해야 한다.

세째 민주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독서운동과 가정, 학교, 사회의 삼위일체로 평생학습의 연계에서 독서생활화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그 성과를 얻게 하는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요청된다.

이 독서생활화는 현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고 후손에 대한 현대인의 미래 투자와 책임이다. 독서에 의한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조화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하고 슬기와 문화를 전승시켜 인류사회를 밝고 명랑하게 할 것이다.

24) 한국문예진흥원 op. cit. pp.42~53